노송동 천사마을, 천사를 닮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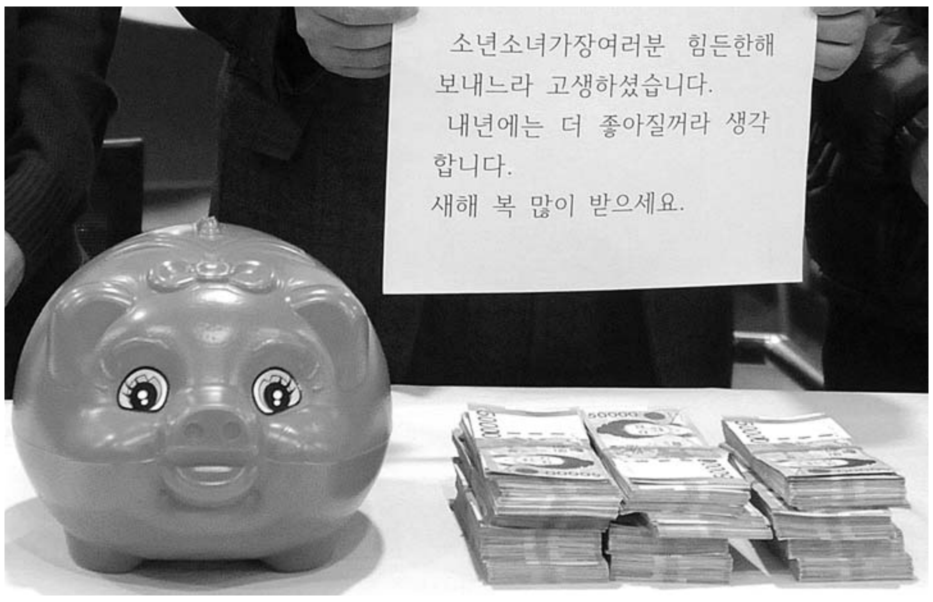
‘천사길사람들’, 수익사업 바탕으로 환경개선 · 소외계층 후원… 내년 천사마을 인도 개설

전주시 노송동 천사마을은 올 겨울도 따뜻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18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액은 5억6000여만원에 육박하고 후원을 받은 세대만도 4,000여 가구에 이른다.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은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70%가까이에 달하고 거주하는 연령층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구도심으로, 지난 2000년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 온 이후 마을은 점차 천사를 닮기 시작했다. 천사의 따뜻한 온정은 훈훈하게 마을 사람들을 데우기 충분했고, 이윽고 마을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먼저, 노송동 일대 주민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고 그의 선행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숫자 천사(1004)를 연상케 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다채롭게 펼쳐왔다.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 올해도 왔다 28일 오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5만원권 다발과 동전이 가득찬 돼지저금통이 놓여져 있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는 2000년부터 시작돼 지난 17년간 4억9780여만원이 넘는 성금을 기부했다.

또한, 지난 2010년 1월에는 노송동 주민센터 화단에 ‘당신은 어둠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얼굴 없는 천사의 비’를 세우기도 했다. 또,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금을 두고 가던 장소는 시민들의 기부와 나눔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부천사쉼터로 탈바꿈됐다.

시는 또 2011년 국토부 도시재생 테스트 베드사업을 통해 노송동 주민들과 함께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텃밭가꾸기 등 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천사마을을 테마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도 추진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오던 주민들은 자치와 경제적 자립적이 바탕이 된 마을 자립을 고민하기 시작, 2015년 전주형 공동체 사업인 온누리 공동체 ‘천사길 사람들’을 구성했다. 이 공동체는 이후 일자리와 수익 창출 사업을 바탕으로 마을 환경개선과 소외계층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일례로, 지난해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계절 천사화단’을 만들어 마을의 분위기를 밝게 바꿨고, 지난 2월에는 천연염색 제품 판매를 위한 주민자립형 협동조합을 창립해 수익금으로 ‘천사표 이야기 밥상’ 등을 기부하고 있다.

천사길 사람들은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를 인정받아 2017년 공동체 한마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을 주민들은 집 담장부터 페인트를 칠하고 이웃집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마을 공방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송동 주민들은 마을 총회를 통해 ‘천사가 내려앉은 노송동 전봇대’ 등 16개 마을의제를 심의하고 마을 계획을 확정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천사가 내려앉은 전봇대 △천사마을 이야기길 조성 및 지도제작 △천사예술단 만들기 △어르신 대문문턱 낮추기 △천사축제 법인화 및 콘텐츠 개발 등 천사마을 특성이 잘 반영된 사업들이다. 또,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마을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매월 정해진 날 집 앞에 고물을 내놓으면 바로 수거하는 ‘마을 반짝 고물상’ 사업 등도 전개 예정이다.

또한 다가올 2018년에는 아중로에서 전주제일고 정문에 이르는 260m 구간의 천사마을 인도가 개설될 예정으로, 천사마을 주민들의 안전 물론이고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탐방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주민에게 불어온 얼굴 천사의 날개 짓은 마을의 환경과 주민의 변화를 가져와 경제적 자립까지 이어지는 토네이도가 되어 천사의 뜻에 보답했고, 노송동 마을 재생은 도시재생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고준희양 강력범죄로 수사

경찰, 수색작업 · 수사 병행… 가족들 이상한 점 많아

당초 실종신고를 받고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고준희(5)양이 살던 집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이 수사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고양의 친부인 고모(36)씨와 양모 이모(35)씨, 고양의 양외할머니 김모(61)씨의 주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고양의 가족들에게 고양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수색작업과 함께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사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씨의 컴퓨터에서는 조립식 장난감이나 생필품과 같은 물품을 검색하고 고양의 양육에 관련된 것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실종 사건 이후 고양 실종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찾아본 이력도 없었다. 계모 등 다른 가족들의 컴퓨터에도 양육과 관련된 결과는 없었다.

압수수색 조사과정에서 고양이 당초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18일보다 4일 빠른 14일에 가족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고양이 강력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보고 고양의 가족들을 상대로 법최면과 거짓말탐지기를 하려 했으나 가족들이 이를 거절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실상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행적은 3월 19일 전주의 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과 고양이 어린이집을 끊기 전인 3월 30일 어린이집을 등교한 것이 마지막이다.

또한 8월 31일 고양의 양외할머니 김씨가 인후동에서 우아동으로 이사할 때 당시 이삿짐을 옮긴 직원들에게 고양을 목격하지 못했고 이웃들의 목격담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당초 지난달 18일로 봤던 실종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단순 실종 사건으로 접근해왔지만 가족이나 외부 강력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 청년소통공간 ‘비빌’ 3호점 탄생

전주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인 ‘비빌’ 3호점이 탄생했다.

전주시는 28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스페이스코웍 전북도청점과 ‘비빌’ 3호점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소통공간 ‘비빌’ 지정은 1호점인 고사동 ‘우깨팩토리’와 전북대 인근 ‘커피미리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스페이스코웍 전북도청점은 이번 협약에 따라 10인 이하의 모임이 가능한 1개의 공유오피스(B존235호)를 연중 24시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예약이 중복될 경우에는 공실에 한해 추가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소통공간 ‘비빌’은 스터디와 회의, 모임을 위한 공간을 찾는 청년들이 사전 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비빌 3호점 스페이스코웍 전북도청점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사전 예약한 후 카드키 발급을 통해 대관을 진행한다. /채규남 기자

아내 살해 후 아파트서 투신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6층 높이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28일 오전 9시 39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A(42)씨가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의 복부에서 출혈이 있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아파트 소파에서는 아내 B(3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현장에서 이혼 문제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내 살해 후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성추행 독서실 사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독서실 사장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내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B(17)양과 대화를 나누다가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총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카운터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녹화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내버스 1일 2교대제 시범운영

오는 2월부터 전북지역 최초로 전주시내버스 1일 2교대가 시행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과 문용호 (유)전일여객 대표, 남상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장은 28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시내버스 1일 2교대제 시행을 위한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전일여객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와 전일여객 시내버스 노·사는 이 협의체를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2교대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시행된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맞춰 13개 노선, 40대 시내버스에서 1일 2교대제가 시범 운영됐지만, 회사 차원에서 1일 2교대제를 전면 시행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2교대제가 시행되면, 운수노동자들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운수노동자들이 하루 18시간씩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피곤해진 몸과 마음으로 인해 발생했던 고질적인 불친절 문제도 줄어들어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근 기자